

<Quarterly Report>

해외건설 인사이트(INSIGHT)

[2021 – Vol. 1]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참여 연구원의 주관적인 견해로, 해외건설협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목 차 ~~

I. 글로벌 건설시장 동향	1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1
2. 지역별 시장 동향	2
3. 공종별 시장 동향	8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9
1. 거시지표	9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14
3. 개도국 PPP 시장 동향	17
III. 해외건설 수주 진단	19
1. 수주추이 및 특징	19
2. 지역별 수주 동향	20
3. 공종별 수주 동향	22
IV. 정책제언	24

I.

세계 건설시장 동향

1. 세계 건설시장 규모

- (세계건설시장 현황 및 전망) 글로벌시장 조사기업 IHS Markit 발표('20.12월)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역성장에 빠졌던 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 '21년에는 전년 대비 8.1% 성장한 11.9조불로 전망
 - 세계건설시장규모 전망(조불) : 11.3('20.9월 발표)→11.9('20.12월 발표)
 - 세계건설시장성장률 전망(%) : 4.8('20.9월 발표)→8.1('20.12월 발표)
- 세계건설시장 주요 동향
 -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추가 재정 지출 등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IMF, 5.2%('20.10)→5.5%('21.1), 원유 수요 회복에 따른 국제유가 50불대로 반등
 - 이에 따라 신규 투자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따른 기자재·인력 수급 원활화·기존 현장의 정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
 - 단,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 지속, 유럽·신흥국과의 경쟁 심화,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슈가 뉴-노멀(New-Normal)화되는 세계 시장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

[세계건설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20.12)	이전 전망('20.9)	증감
규모	119,450	113,512	5,938
성장률	8.1	4.8	3.3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세계건설시장 전망 추이]



2. 지역별 시장 동향

- **(아시아)** 세계건설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은 지난해 대비 10.7% 성장한 6조 645억불로 전망
 - 중국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3.4% 증가한 4조 356억불로 전망되며 제조업, 비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Caixin PMI, PMI), 철강 생산량과 함께 인프라 분야 투자도 반등
 - 중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각종 경기 부양책이 확대되고 있어, 특히 고속철도, 도로, 5G 관련 인프라 사업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7.9% 증가한 329억불로 전망, 코로나19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생산거점(Manufacturing Base)으로 베트남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킴
 - 이에 따라 정부는 철도, 도로, 항공 등 교통 인프라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며, 이 외에도 발전소 등 전력 인프라 확충에도 집중하고 있음
 - 특히 베트남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북남고속철도(The North - South High-Speed Railway) 총 사업비는 약 587억불에 달하며 연간 25백만명의 승객, 1.2백만톤의 화물을 수용하기 위한 신롱탄국제공항(The New Long Thanh International Airport)사업 추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태국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8.7% 성장한 416억불로 전망되며 정부는 남부 지방의 도로, 철도 건설이 중심이 된 사업에 40억불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단, 실업률 증가 및 소비 감소 영향으로 상업용 빌딩 및 주택 수요는 당분간 정체될 전망)
 - 무엇보다도 2020~2027년 사이에 총 규모 334억불 수준의 92개의 PPP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그 중 3개의 주요 공항(Don Muang-Suvarnabhumi-U Tapao)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아시아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60,645	57,183	3,462
성장률	10.7	6.6	4.1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아시아 시장 전망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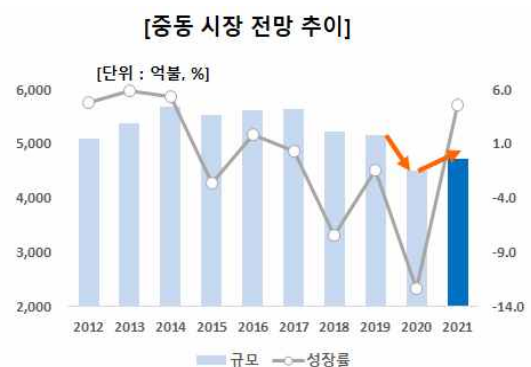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8.2% 성장한 3,536억불로 전망되며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 이익 및 가계 소득 감소로 인해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이 존재했지만,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있음
- 정부가 할당한 2020년도 인프라 투자액 290억불 중 30%는 축소된 상황이지만 조코 위도도(Joko Widodo) 대통령은 2020~2024년간 4,300억불의 인프라 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중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하며 그 중 신수도 이전사업, 25개의 신공항, 발전 등 에너지 부문 비중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말레이시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4.5% 성장한 416억불로 전망, 2020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광을 중심으로 한 주요 산업이 침체되었으며 특히 유가 하락은 말레이시아 실물 경제에 타격을 가함에 따라 민간 투자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2020년 상반기부터 582억불 수준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해 추진 중으로 4.6억불 규모의 동부 해안철도사업(The East Coast Rail Link)을 비롯한 교통 인프라 사업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
- 2019년 기준 2% 수준인 신재생 비중을 2025년까지 20%로 대폭 확대한다는 정부 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싱가포르**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7.3% 성장한 238억불로 전망되며 특히 도심 지하철(Metro Rail Transit, MRT), 지하 하수처리 터널(The Deep Tunnel Sewerage System, DTSS), 주택 개보수 사업과 같은 민생 관련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 중임

-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간 교통 인프라에 723억불 투자를 비롯해, 태양광 발전사업 확대가 기대되며 2020년 현재 약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용량(capacity)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충할 전망
- (중동) 세계건설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중동 건설시장은 지난해 대비 4.6% 성장한 4,721억불 규모로 전망
 - 사우디아라비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4.7% 성장한 938억불로 전망되며 특히, 주요 플랜트 분야의 전방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 기업들의 자본지출(Capital Expenditure, CAPEX)이 2021년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할 전망
 - 이에 따라 Oil & Gas 관련 플랜트 사업에 대한 발주물량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등에 133억불을 투입할 계획으로 향후 토목, 건축 부문 발주 확대도 기대할 수 있음
 - 아랍에미리트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2.6% 성장한 604억불로 전망, 작년 재정 지출은 유가 하락에 따라 계획 대비 약 50% 감소한 바 있으나 배럴당 50불 수준으로 반등해 건설시장은 점진적인 회복 예상
 -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및 금융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 예산 중 인프라 투자 비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음

[중동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4,721	4,795	-74
성장률	4.6	1.7	2.9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카타르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8.9% 성장한 480억불로 전망되며 2020년 석유&가스 가격 급락 및 관광산업 위축으로 입은 타격을 극복하기 위해 민간 부문 지원을 위한 206억불 규모의 경제 보호 조치를 발표한 바 있으며, 2022 월드컵 관련 인프라를 비롯해 1,500억불에 달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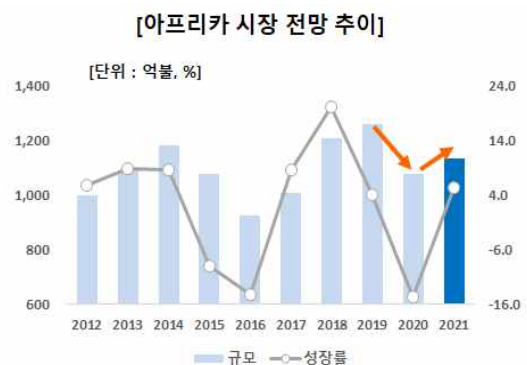
프로젝트도 추진 대기중

- 특히 North Field Expansion(NFE) 사업에 대한 투자 기대로 건설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
 - **이집트**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1.4% 성장한 500억불로 전망
 -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이집트 GDP의 12%를 차지하고 있는 관광업에 큰 타격을 받았으나, 하반기부터 점차 회복함에 따라 2021년부터는 경제 전반의 정상화가 예상됨
 - 정부는 2020~2021 회계연도에 248억불을 건설부문에 투자할 계획을 수립했으며 그 중 교통 부문에 50%, 주거용 건물에 30%가 투입될 예정, 특히 전력부문을 살펴보면 카이로와 기자지역에 약 12억불이 투자될 것으로 보임
- **(아프리카)** 세계건설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시장은 지난해 대비 5.4% 성장한 1,137억불로 전망됨
- **남아공**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9.4% 성장한 339억불로 전망되며 중장기적으로는 향후 10년 동안 25건 에너지 프로젝트에 182억불이, 65건 교통 프로젝트에 198억불이 소요될 계획

[아프리카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1,137	1,096	41
성장률	5.4	2.2	3.2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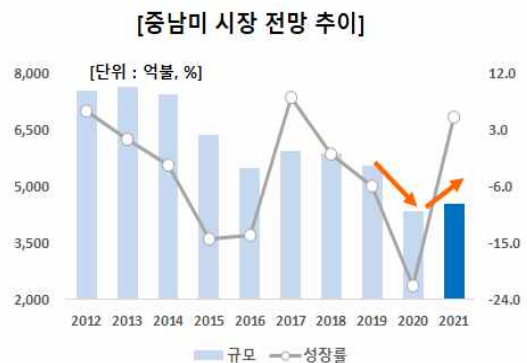
- **나이지리아**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3.4% 성장한 609억불로 전망되며 나이지리아 GDP의 10%,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원유 가격 상승은 긍정적 신호
- 경제 회복을 위한 도로 및 매년 30만호 주택 건설사업을 중심으로 59억불 수준의 경기 부양책도 추진되고 있음

- **케냐**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3.4% 성장한 119억불로 전망되며 VISION 2030 관련하여 LAPSET(Lamu Port-South Sudan-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Standard-Gauge Railway : SGR) 사업을 우선 추진 예상
- **(중남미)** 세계건설시장의 4.9%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은 지난해 대비 4.9% 성장한 4,535억불로 전망됨

[중남미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4,535	4,514	21
성장률	4.9	5.5	-0.6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브라질**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4.8% 성장한 1,249억불로 전망, 브라질 산업은행(BNDES)이 주축이 되어 인프라 PPP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민간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 **멕시코**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9.9% 성장한 1,280억불로 전망, 중앙은행은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0.25% 내린 4.25%로 조정했으며 Andres Manuel Lopez Obrador(AMLO)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주요 인프라 및 사회 프로그램에 256억불을 지출하겠다고 발표
- **칠레**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6.0% 성장한 344억불로 전망되며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점진적인 경제 회복 예상
- 칠레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인프라 투자 계획을 추진 중이며, 특히 공공사업부(MOP)는 총 29억불을 투입하여 병원, 고속도로, 공항 등을 PPP 방식으로 추진 예정
- Enel Green Power Chile사는 총 1.8억불을 투자하여 144MW 규모의 Renaico II 풍력발전단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ES Gener사는 5천만불 내외의 풍력 및 태양광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칠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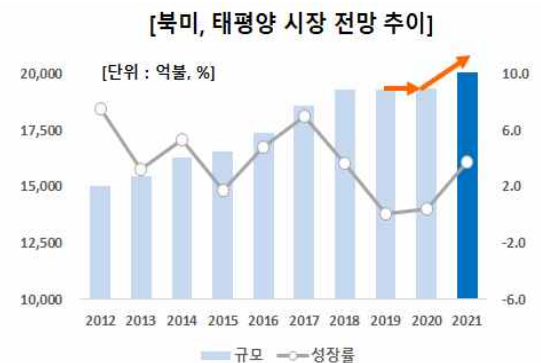
정부의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일환으로 기업들이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

- 페루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3.0% 감소한 211억불로 전망되지만 경기 부양 및 활성화 대책으로 주요 56개 인프라 사업에 총 27억불을 투자한다고 발표
- 주요 프로젝트로는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13억불), 살라베리 항구 건설 사업(1억불)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코로나 사태로 국내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만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
- (북미·태평양) 세계건설시장의 16.8%를 차지하는 북미·태평양 시장은 지난해 대비 3.7% 성장한 2조 72억불로 전망됨
 - 미국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2.1% 성장한 1조 4,356억불로 전망되며 최근 바이든 대통령 취임에 따라 친환경 인프라 분야 투자를 비롯해 대규모 경기 부양 예상(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부양책을 통해 교통, 통신 인프라 및 전력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기대됨)
 - 캐나다 건설시장규모는 지난해 대비 11.8% 성장한 2,015억불로 전망

[북미, 태평양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20,072	18,142	1,930
성장률	3.7	-2.2	5.9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 (유럽) 세계건설시장의 23.7%를 차지하는 유럽시장은 지난해 대비 7.2% 성장한 2조 8,341억불로 전망됨
 - 코로나19 피해가 극심했던 영국(전년 대비 시장 성장률: 14.0%, '21년 시장 규모 4,649억불), 프랑스(11.6%, 3,539억불), 이탈리아(2.8%, 2,111억불)를 비롯해 폴란드(5.9%, 1,063억불), 헝가리(11.3%, 199억불) 등 동유럽 국가들의 성장도 기대됨

- 주목할 점은 경제 침체 상황에서도 유럽에서는 친환경 성장을 지속 추진하고 있는데 그린본드 발행 등 풍력,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

[유럽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28,341	26,789	1,552
성장률	7.2	6.9	0.3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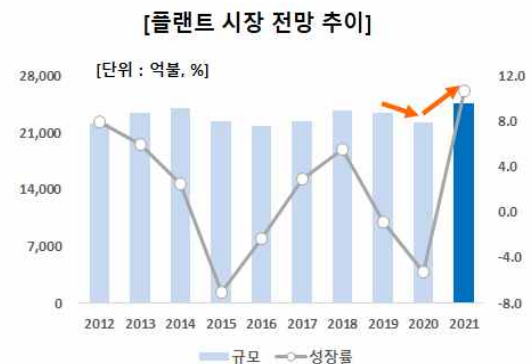
3. 공종별 시장 동향

- (플랜트) 전체 시장의 20.6%를 차지하고 있는 플랜트 시장은 지난해 대비 10.7% 성장한 2조 4,587억불로 전망

[플랜트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24,587	23,458	1,129
성장률	10.7	7.5	3.2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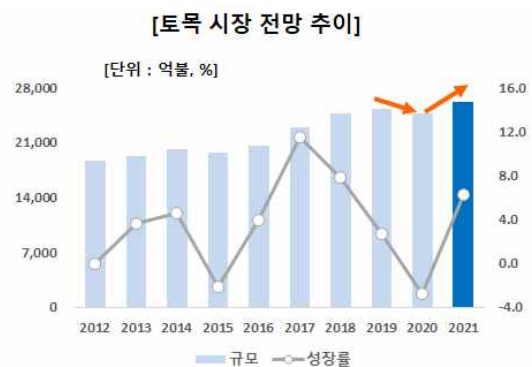


- (토목) 전체 시장의 21.9%를 차지하고 있는 토목 시장은 지난해 대비 6.2% 성장한 2조 6,159억불로 전망

[토목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26,159	24,831	1,328
성장률	6.2	3.7	2.5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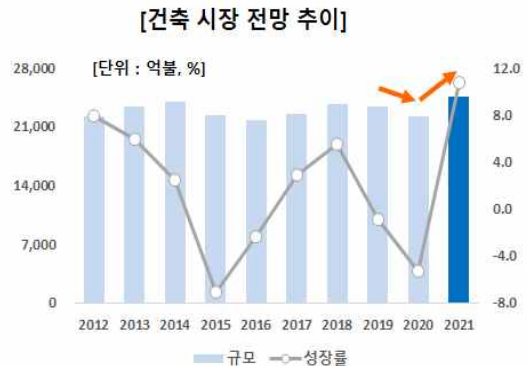


- (건축) 전체 시장의 57.5%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 시장은 지난해 대비 8.0% 성장한 6조 8,704억불로 전망

[건축 시장 전망] [단위 : 억불, %, %p.]

구분	최근 전망 (20.12)	이전 전망 (20.9)	증감
규모	68,704	64,230	4,474
성장률	8.0	4.4	3.6

[출처 : IHS Markit(2020.12), 명목 규모 및 성장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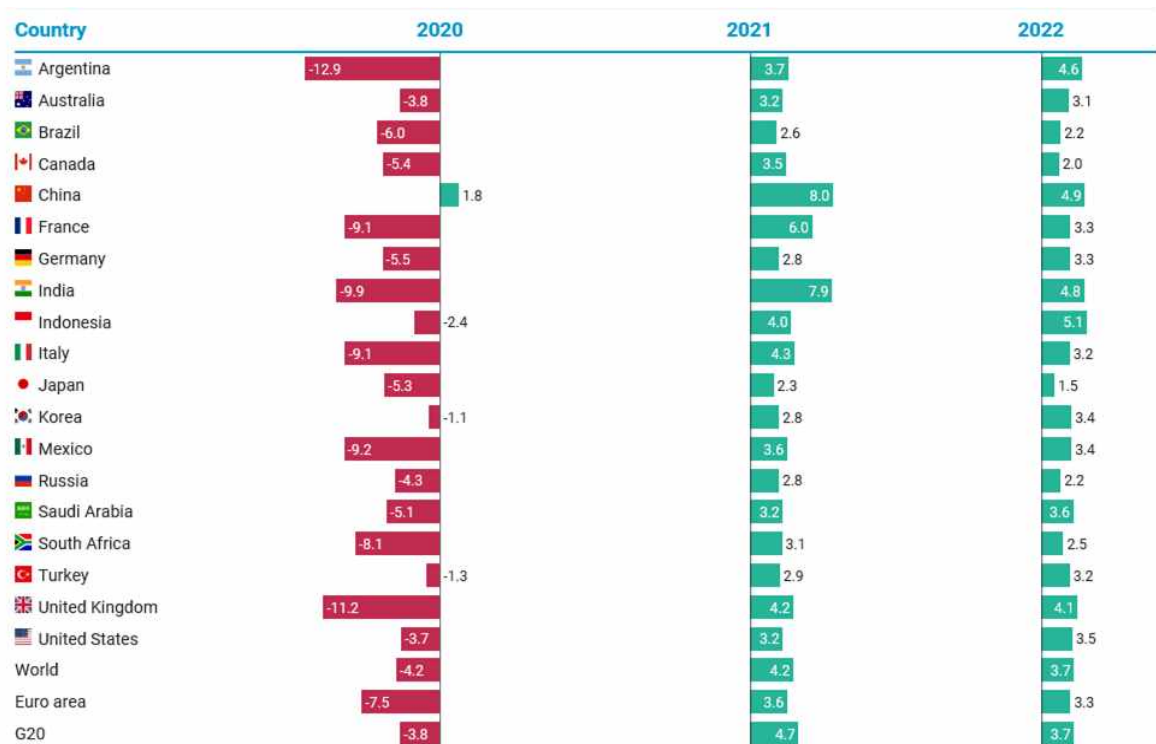
II.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1. 거시지표

- (우리나라 GDP 성장률) 한국은행 속보치에 따르면, 2020년 4분기에는 전기 대비 1.1% 성장(YoY로는 1.4% 감소)했으나 연간 기준 IMF 이후 22년만에 역성장(-1.0%)했음
 - '19년 대비 민간소비가 6.5%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6.8%)와 정부소비(+5%)가 증가했고, 수출 감소(-2.5%) 대비 수입이 더 감소(-3.8%)한 불황형 흑자에 힘입어 OECD 국가 중 가장 양호한 경제 성장률 기록
- (글로벌 GDP 성장률) OECD에 의하면, 2020년 세계 주요국(G20)의 경제 성장률은 1.8%(중국 발표치: 2.3%) 성장한 중국을 제외한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봉쇄(Lockdown) 영향으로 -4.2%를 기록했으며 특히 유럽과 남미지역이 큰 폭으로 하락

- G20 국가별 20, 21, 22년 GDP 성장률 전망치 -



* 출처: OECD (2020), "OECD Economic Outlook, December 2020",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 IMF의 GDP 성장률 전망

- 20년 성장률 전망치는 -4.3%에서 -3.5%로 +0.9%p 상향 조정되었으며 21년 전망치도 +5.5%로 +0.3%p 상향 조정, 22년에는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21년 상반기까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별 회복 강도가 다르게 나타나겠지만 백신과 미국 등의 추가 정책지원에 대한 기대감으로 하반기부터 성장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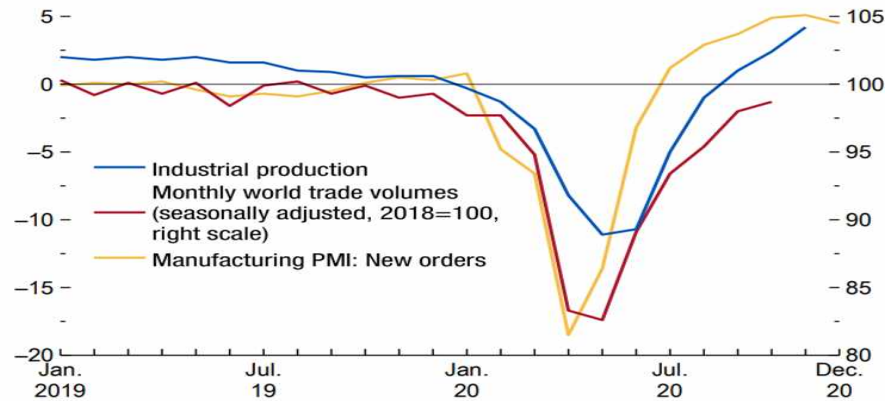
-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추이 -



* 출처: IMF, World Economic Outlook - Update ('21.1)

- 코로나19는 확산되고 있으나, 백신 기대감에 경제활동 특히 대면활동이 증가하면서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제조업 PMI도 100을 넘는 등 회복 추세

- 글로벌 생산 지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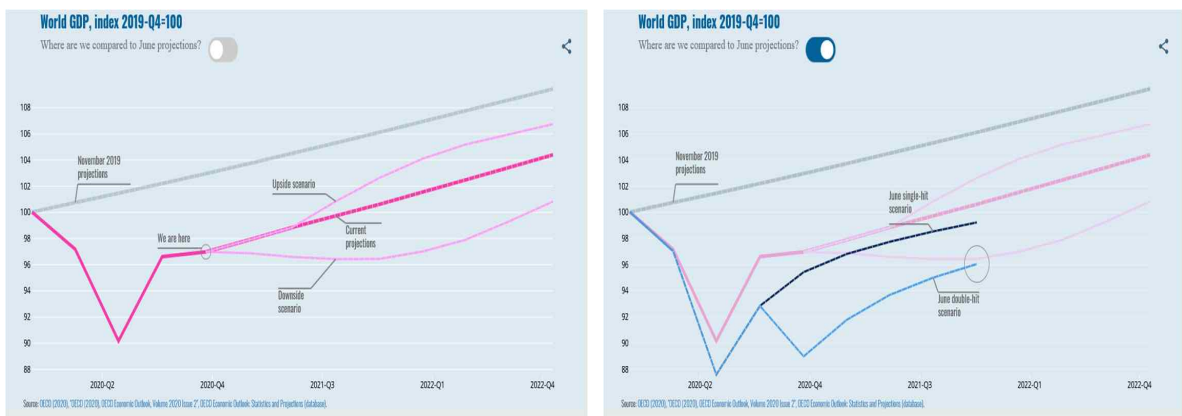
Sources: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 Haver Analytics; Markit Economics; and IMF staff calculations.

- EMDE 국가들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부채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들 국가가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울 경우, G20이 합의한 공동 프레임워크에 따라 채권단과 협력하여 부채를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계속 긴밀한 협력 필요

○ OECD의 GDP 성장률 전망

- '20년 글로벌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로 인한 2차 충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4.2% 하락하는데 그치며 OECD에서 6월에 발표한 2가지 시나리오 중 1차 충격에 그칠 때를 가정했던 성장률에 비해서도 하락폭이 적었음

- OECD의 글로벌 GDP 성장률 전망 비교 -



* 출처 : OECD (2020), "OECD (2020),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0 Issue 2", OECD Economic Outlook: Statistics and Projections (database)

- '21년 글로벌 GDP는 4.2% 성장이 전망되지만, 빠른 백신 개발과 보급을 위한 국제공조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 대비 불확실성이라는 위험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실제 회복은 더딜 것으로 전망
-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강한 경기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21년에도 팬데믹 이전('19년) 수준으로 회복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되면서 향후 경제성장은 긍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1년 4분기, 부정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22년 4분기에 '19년 수준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
- (국제유가) '21년 유가는 최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변종 확산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및 OPEC+ 증산 가능성* 등의 하방요인을 간과할 수 없으나 백신 공급과 경기 부양책에 의한 경기회복 및 소비 반등** 등의 상방요인이 우세해 전년(약 39.2\$)대비 크게 증가한 49.7\$ 안팎 예상(美 IEA('21.1) WIT기준/배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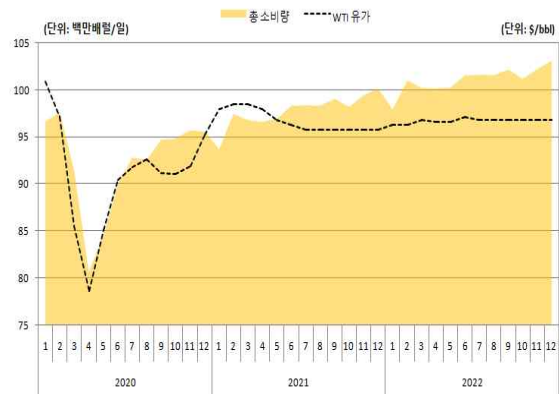
* 사우디 및 러시아 주축 OPEC+회의에서 향후 수요 전망에 따라 감산규모를 2020.4월 970만 배럴/일 → 2020.7월 770만 배럴/일 → 2021.1월 720만 배럴/일 결정한 바 있으나 감산 규모가 더 축소(증산)될 가능성 배제 못함

** EIA에 따르면, '21년부터 석유 소비량은 전반적으로 생산량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년 대비 약 560만 배럴/일 증가 예상

- 세계 석유 공급 및 소비 전망 -



- 세계 석유 소비 및 유가(WTI)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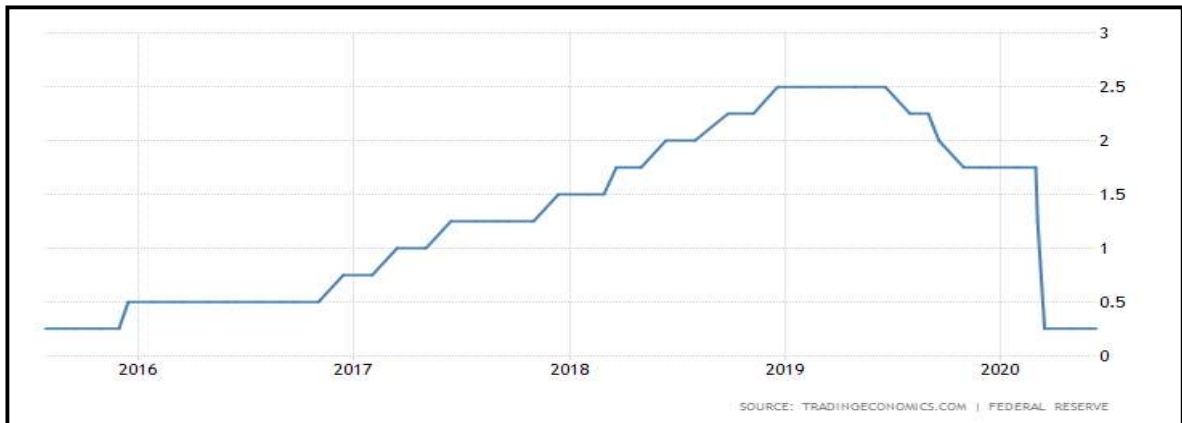


- (미국 기준 금리 등) 미국 기준 금리는 0.00~0.25%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단행된 초저금리가 지속 유지되고 있음
- 최근(1.14)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를 올릴 때가 오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겠지만, 그 시기가 아주 가까운 것은 아니라고' 언급함에 따라 이를 두고 미국 주요 언론은 파월 의장이

현재의 초저금리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이는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지난 회의에서 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이 목격되기 전까지는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것을 재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음

- 미국 기준 금리 추이 -



- 단, 파월 의장은 '완화적 정책을 축소할 때가 되면 온 세상이 알게 될 것', '자산 매입의 점진적 축소 시작을 고려하기 한참 전에 대중과 매우 분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한 점 등을 볼 때, 자산매입의 축소를 의미하는 테이퍼링(Tapering) 가능성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함
- 일반적으로 미국 기준 금리가 인하되거나 초저금리가 유지되는 경우, 미국은 물론 신흥국에 대한 투자 활성화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영향이 건설투자로 이어질지 여부는 각국의 재정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응이 요구됨
- **(환율)** G2(미국, 중국)간 무역 갈등 완화, 미국의 재정 정책 지속, 백신 보급에 따른 경제 정상화를 가정할 경우, 달러화 약세, 원화 강세 전망
 - (원/달러 환율)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바이든 정부의 경기 부양책에 따라 달러 공급이 증가하고, 경기개선에 따른 안전자산 기피현상으로 인해 달러 약세가 심화될 것으로 전망
 -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원/달러 환율은 대외 및 대내 요인의 안정으로 1,050원~1,130원선으로 전망

- 원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해외 수주 측면에서 다소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프로젝트 생애 주기를 고려할 때, 계약 통화, 기자재 구입 등 지출시 통화의 종류 등 사업별 상황에 따라 환율이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음

- 국제 투자은행의 주요 환율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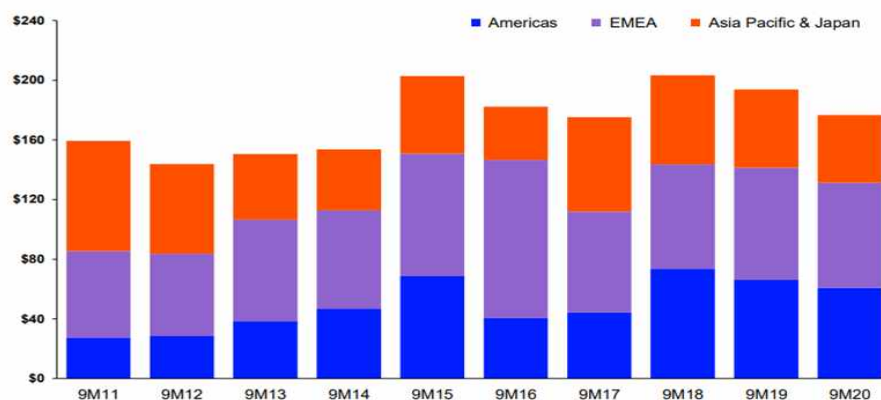
구분	유로/달러		엔/달러		위안/달러	
	'20년 4분기	'21년 2분기	'20년 4분기	'21년 2분기	'20년 4분기	'21년 2분기
평균	0.84	0.83	104.9	105.5	6.79	6.77
최고	0.87	0.89	108.0	109.0	7.10	7.45
최저	0.82	0.80	100.0	100.0	6.65	6.50

* 출처 : Bloomberg, 현대경제연구원

2. 글로벌 PF 시장 동향 (Loan 시장을 중심으로)

- 2020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프로젝트 대출(Loan)시장 규모는 1,236억불을 기록하며 코로나19 상황 하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3.4% 성장
 - * 전체 PF시장은 채권(Bond)부문이 207억불에서 150억불로 27% 감소하며, 전체 PF시장은 1.1% 감소
- 그러나, '20년 3분기에는 Loan시장도 전 분기 대비 크게 위축되어(QoQ 33% 감소) 누계 1,767억불(518건)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

- 최근 10년 프로젝트 금융 대출 규모 추이(십억불) -



* 출처 : Project Finance Review, First Nine Months 2020 / PF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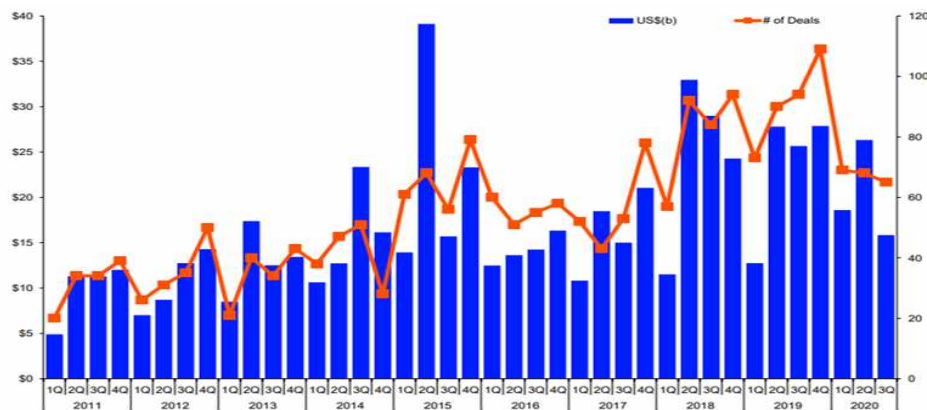
○ 지역별 PF(Project Finance) 동향

- 미주, EMEA*, 아시아 태평양 지역 모두 대출 규모가 감소했으며, 특히 아태지역의 하락폭이 -13%로 가장 큼

* Europe, the Middle East and Africa

▶ (미주) 총 608억불(201건)로 전년 동기 대비 8%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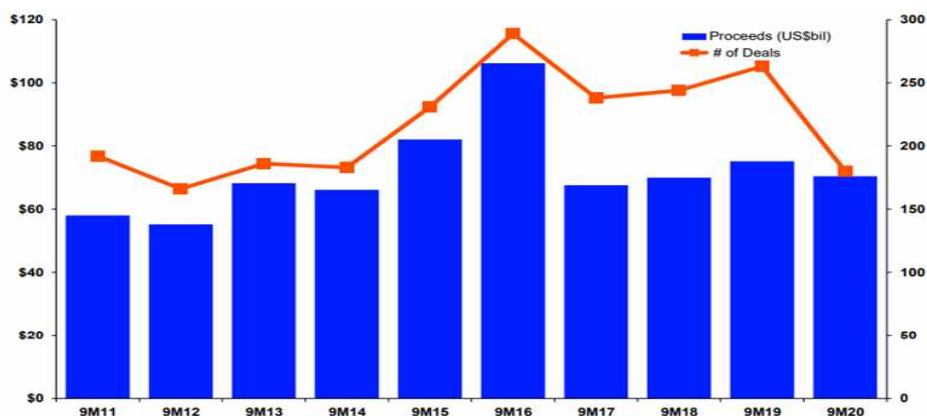
- 최근 10년 미주지역 프로젝트 금융 대출 규모 추이(십억불) -



* 출처 : Project Finance Review, First Nine Months 2020 / PFI

- ▶ (EMEA) 총 704억불(180건)로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으며 유럽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하로 크게 감소한 226억불(22건)에 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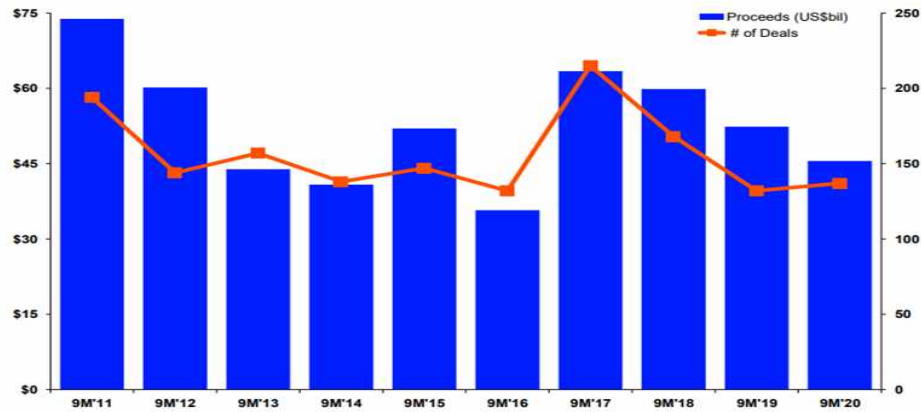
- 최근 10년 EMEA지역 프로젝트 금융 대출 규모 추이(십억불) -



* 출처 : Project Finance Review, First Nine Months 2020 / PFI

- ▶ (아태) 총455억불(137건)로 전년 동기 대비 13% 감소했으며 이전 분기 대비 33% 감소(전력부문은 1년전보다 8% 감소했지만 여전히 214억불(84건)로 시장을 주도)

- 최근 10년 아태지역 프로젝트 금융 대출 규모 추이(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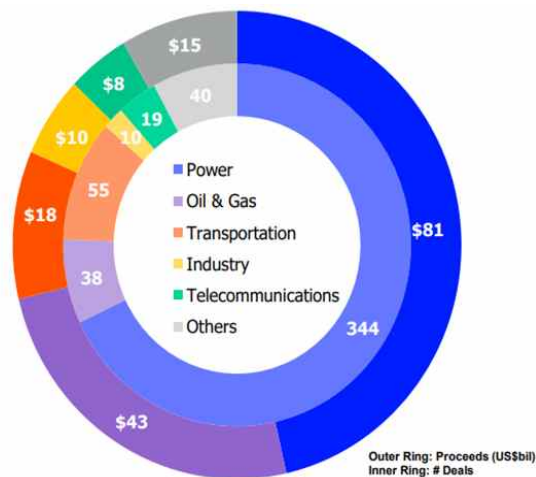


* 출처 : Project Finance Review, First Nine Months 2020 / PFI

○ 공종별 PF(Project Finance) 동향

- 공종별로는 전력부문이 810억불(344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Oil&Gas(430억불, 38건), 교통(180억불, 38건)부문이 그 뒤를 이음

- 2020년 3분기 공종별 대출 규모 현황(십억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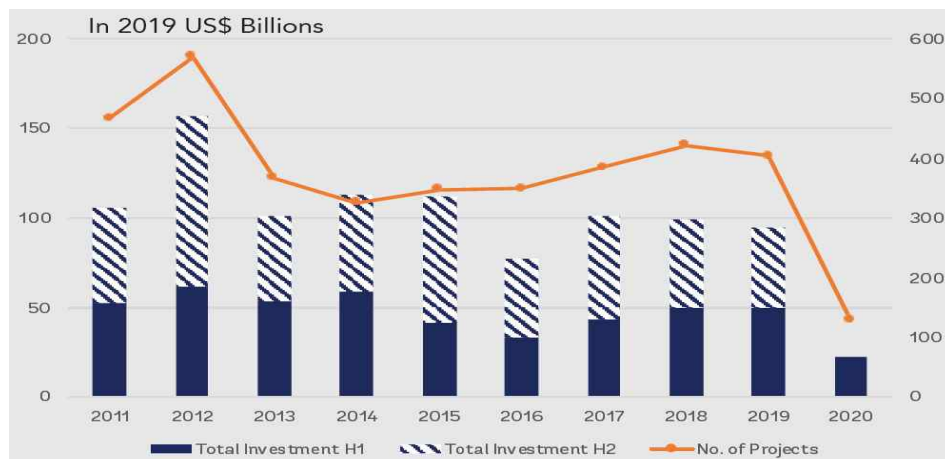


* 출처 : Project Finance Review, First Nine Months 2020 / PFI

3. 개도국 PPP시장 동향

- World bank PPI자료('21.1)에 의하면, 신흥국·개발도상국(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EMDE)에 대한 2020년 상반기 민간부문투자(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PI)는 128건, 219억불로 2019년 상반기투자 대비 56% 감소함
- * 2012년 1,500억불 이상 PPI가 이뤄진 이래 매년 1,000억불 수준을 보이다가, 코로나 19 상황으로 크게 하락했으나, 상황 호전시 반전할 여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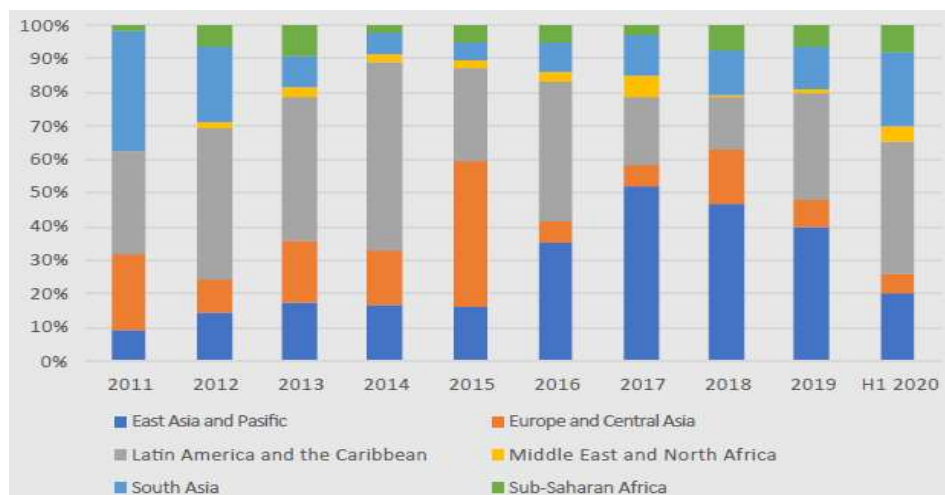
- EMDE의 PPI 약정 추이 -



* 출처 : Worldbank PPI자료('21.1)

- EMDE의 지난 10년간 지역별 민간부문 투자약정 추이를 살펴보면,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중남미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 들어와 남아시아지역에 대한 투자도 확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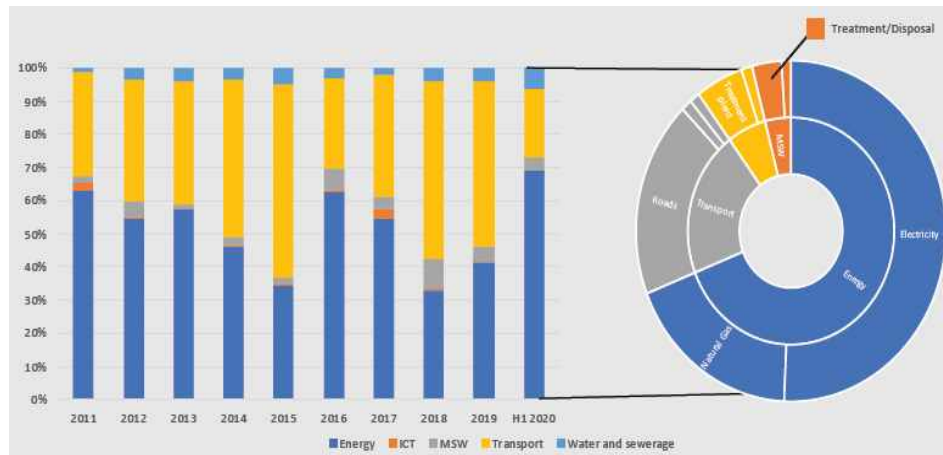
- EMDE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지역별 민간부문의 투자약정 추이 -



* 출처 : Worldbank PPI자료('21.1)

- EMDE의 과거 10년간 공종별 PPI투자 추이를 살펴보면, 교통 및 에너지 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20년 상반기의 경우 약 69%를 에너지부문이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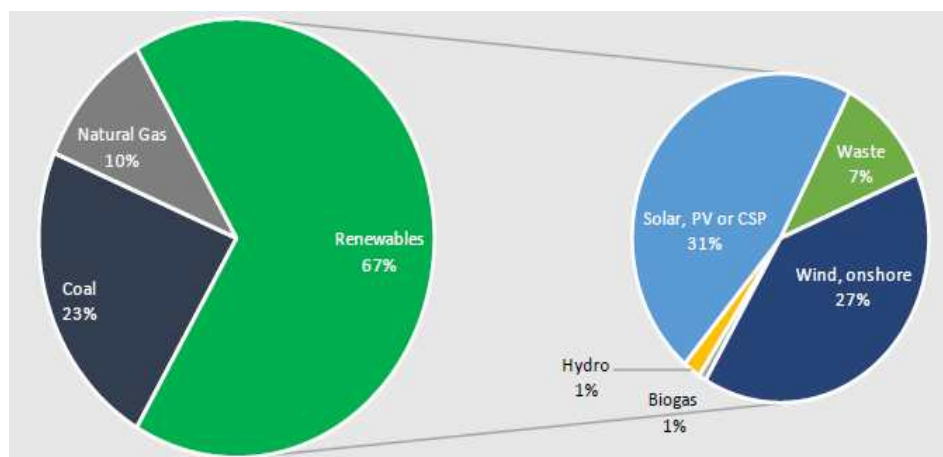
- EMDE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공종별 민간부문의 투자추이 -



* 출처 : Worldbank PPI자료('21.1)

- '20년 상반기 EMDE의 에너지부문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그 중 민간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태양광 및 육상 풍력 발전 프로젝트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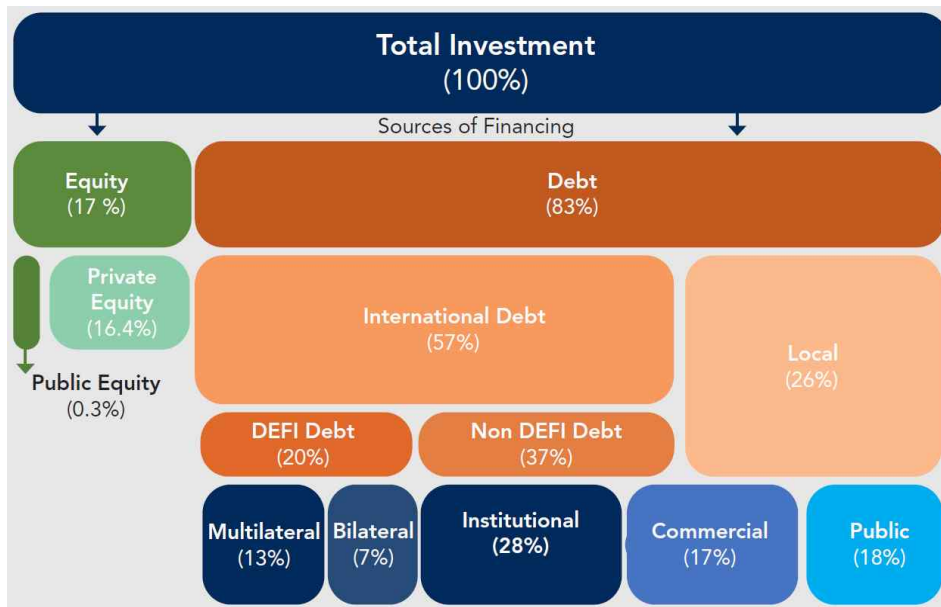
- EMDE의 에너지분야 투자현황(2020년 상반기 기준) -



* 출처 : Worldbank PPI자료('21.1)

- EMDEs에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조달원(Debt+Equity)의 18%는 공공부문이 담당하고 있으며, MDB 등 개발금융 20%, 나머지 62%는 민간부문에서 조달되는 것으로 분석됨

- EMDE의 인프라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원별 분포도(2020년 상반기 기준) -



* 출처 : Worldbank PPI자료('21.1)

III.

해외 수주실적 진단

1. 수주추이 및 특징

- (추이) 해외건설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반등 추세
 - * 연도별 총 수주액/총 건수
 - 2020년 해외건설 수주액은 약 351억불로 2019년 약 223억불 대비 약 57% 증가
 - 수주 프로젝트 단위 규모도 2010년 약 1.2억불에서 2020년에 약 0.6억불로 감소해 중소형화
- (특징) 최근 5년간 평균 수주액은 약 294억불로 감소세에서 도급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반등
 - 최근 프로젝트 단위 규모는 2019년을 저점으로 반등하는 추세지만 중견 & 중소기업 수주비중 전년대비 큰 폭 감소*

* 중견&중소기업 수주비중 추이: 2019년 19.9%→2020년 7.0%

- 최근 들어 개발형 프로젝트 수주비중 증가추세(2016년 0.3%→2019년 8.2%)이나 여전히 90%이상 비중을 차지하는 도급형 수주 경쟁력 시급*

* 최근 FEED(기본설계)와 연계된 멕시코 초대형 정유공장 EPC 공사 수주 등 전방위 엔지니어링 역량 고도화 필요

- 지난 10년간 해외건설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발주형태별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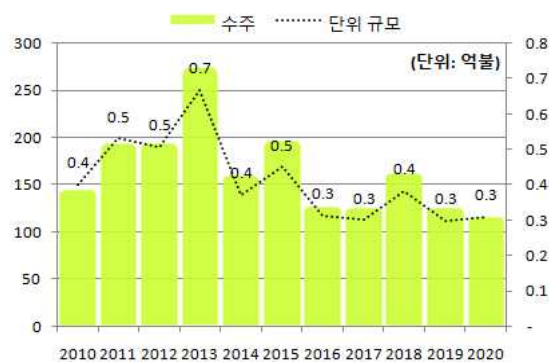


2. 지역별 수주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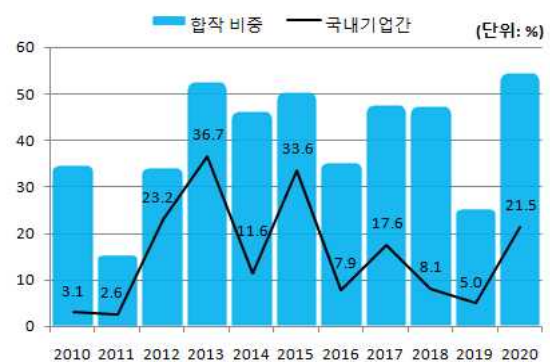
- (아시아) 아시아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3년 이후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 추세이나 합작비중은 2020년에 들어와 급격히 증가

- 2020년 수주액은 115.8억불로 전년 대비 7.6% 감소했으며 프로젝트 평균 (단위) 규모도 여전히 소형화 추세(0.3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년 25.3%에서 2020년 54.4%로 크게 증가(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 역시 5.0%→21.5%로 급증)

-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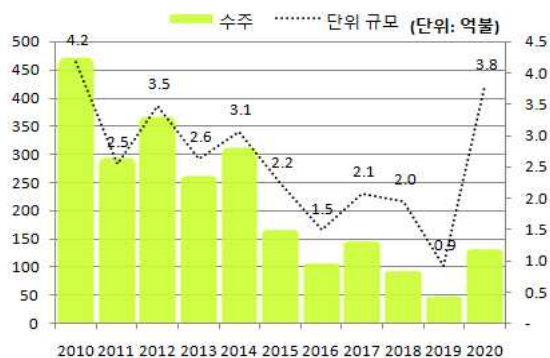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아시아지역 합작비중 추이 -



- **(중동)** 중동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0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에서 반등했으나 합작비중은 2020년에 들어와 급감

- 2020년 수주액은 133억불로 전년 대비 2.8배나 증가했으며 프로젝트 평균 (단위) 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0.9억불→3.8억불)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년 32.7%에서 2020년 22.3%로 감소(국내 기업간 합작 비중도 27.6%→6.2%로 급감)

- 지난 10년간 중동지역 수주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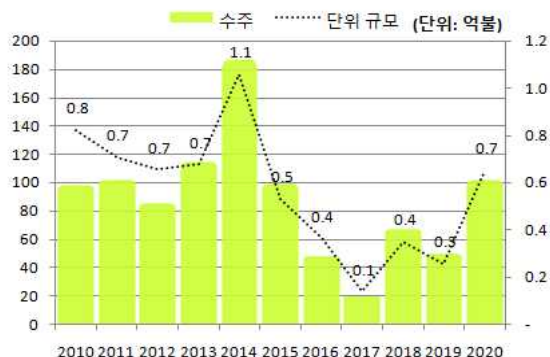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중동지역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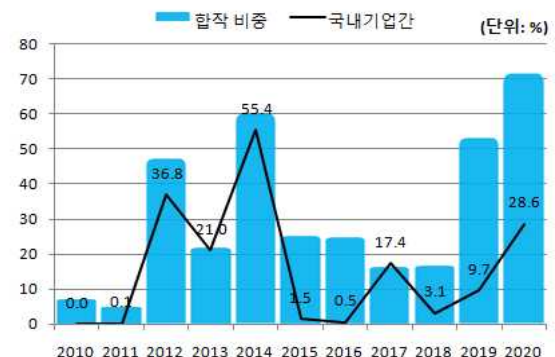
- **(신흥시장)** 신흥지역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4년 이후 전반적인 감소세에서 크게 반등했으며 합작비중도 2020년에 들어와 급증

- 2020년 수주액은 102.6억불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특히 중남미 지역은 24.7배(2.8억불→69.2억불) 급증
 - * 전년 대비 북미·태평양 3.5%, 유럽 35.4%, 아프리카 30.2% 감소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년 53.3%에 이어 2020년 71.7%로 급증(국내기업간 합작 비중도 9.7%→28.6%로 크게 증가)

- 지난 10년간 신흥지역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신흥지역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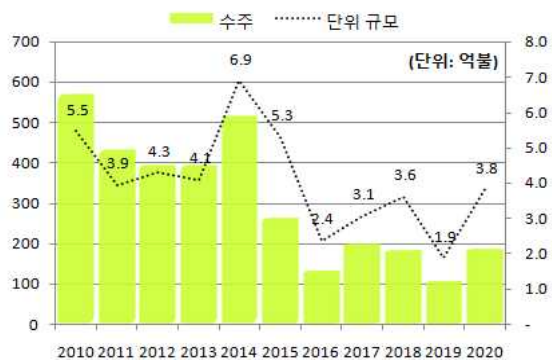


- **(특징)** 지역별 수주 정점 시기가 중동 2010년, 아시아 2013년, 신흥시장 2014년으로 지역 다변화는 계속 진행중이며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외국 기업과 합작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중동지역 프로젝트 단위규모가 감소세에서 대형화되고 있어 공격적 수주 패턴으로 전환
- 우리기업은 중동지역에서는 단독진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우리 기업간 출혈 경쟁을 자제하고 합작패턴으로 전환되었고, 신흥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3. 공종별 수주 동향

- **(플랜트)** 플랜트 수주는 2010~2014년간 전성기 이후 감소 추세이며 합작 비중은 타 공종에 비해 높은 편
- 2020년 수주액은 186.4억불로 전년 대비 71.4% 증가했으며 프로젝트 규모도 내실화 추세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년 44.6%에서 2020년 51.6%로 증가(국내기업간 합작 비중 역시 12.4%→13.5%로 소폭 증가)

- 지난 10년간 플랜트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플랜트부문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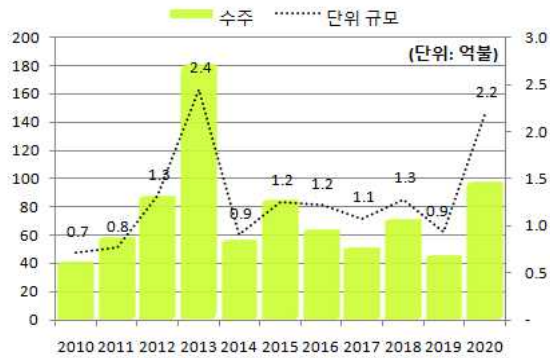


- **(토목)** 토목 수주 및 프로젝트 규모는 2013년 이후 정체되었으나 합작 비중은 높아지는 추세
- 2020년 수주액은 98.4억불로 전년 대비 2.2배 증가했으며 프로젝트 평균

(단위) 규모도 대형화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년 28.6%에서 2020년 57.7%로 크게 증가(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4.9%→33.1%로 급증)

- 지난 10년간 토목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토목부문 합작비중 추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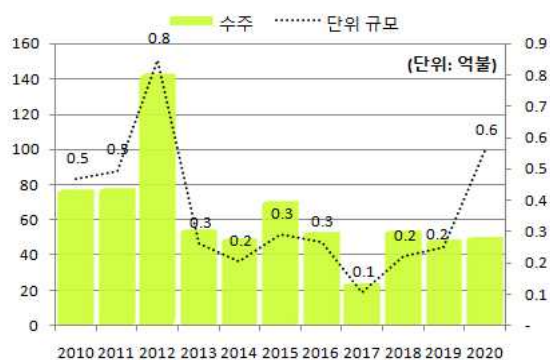


- (건축) 건축 수주 및 단위 프로젝트 규모는 2012년 이후 정체되었으며 합작비중은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세

- 2020년 수주액은 50.3억불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으며 프로젝트 평균 (단위) 규모도 중·대형화

- 국내외기업과 합작을 통해 수주한 비중은 2019년 11.3%에서 2020년 12.7%로 소폭 증가(국내기업간 합작 비중은 11.1%→1.6%로 급감)

- 지난 10년간 건축 수주 추이 -



- 지난 10년간 건축부문 합작비중 추이 -



- (특징) 최근 토건부문으로 다각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국의 재정사업이 확대되고 있어 현지화에 부응하고 리스크 분산을 위해 외국기업과 합작비중 증가 추세

- 전반적인 프로젝트 단위 규모 역시 2019년에 크게 감소했다가 2020년에

들어와 대형화 추세로 전환

- 우리기업은 건축부문에서 국내 기업간 합작패턴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토목 및 플랜트부문에서는 외국 및 현지기업과 J/V로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있는 것으로 여겨짐

IV. 시사점 및 정책제언

- Meed Projects에 의하면, 유가 급락에 따른 2020년 **중동(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지역** 발주규모(낙찰규모)는 1,116.6억불로 전년(1,516.9억불) 대비 **26.4% 감소**했으나 이라크, 알제리* 등 틈새시장 공략을 통해 전년 대비 28배로 수주 선방
- * 이라크 알포(Al Faw) 신항만 후속공사(약 26.3억불), 알제리 SONATRACH Hassi Messaoud 정유 프로젝트(약 16.6억불)

▶ 2021.1.8일 기준, 2020년 **중동(MENA, Middle East & North Africa)지역** 발주규모(낙찰규모)*는 1,116.6억불로 전년(1,516.9억불) 대비 **26.4% 감소**

* 취소, 지연 및 파기된 프로젝트 제외

- **GCC(Gulf Cooperation Council) 6개국*** 발주규모 역시 전년 대비 43% 감소한 628.6억불로 유가 급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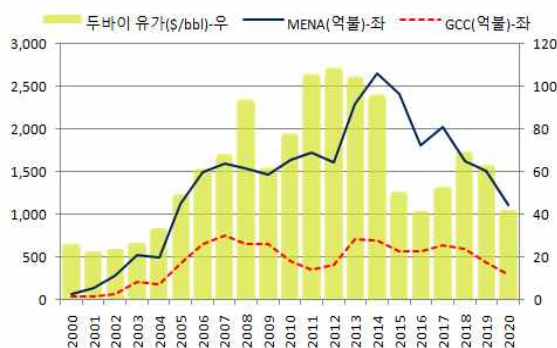
* 사우디, UAE,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

** 두바이 유가(출처: Petronet): 2019년 63.5\$/bbl → 2020년 42.3\$/bb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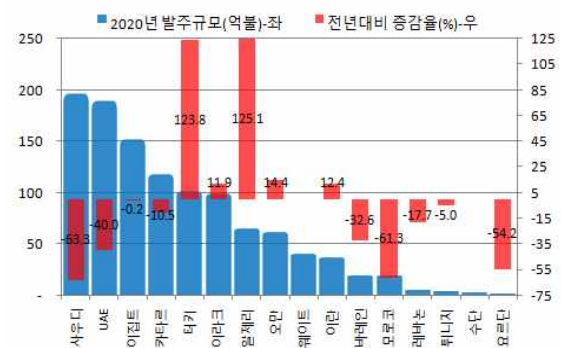
지난 20년간 두바이 유가와 GCC 발주 규모간 상관관계수: 0.68

- 반면, 중동 틈새시장인 이란 및 이라크 발주규모는 전년 대비 12% 증가한 137.2억불로 조사됨

- 중동지역 발주규모 및 유가 추이 -



- 주요 국가별 2020년 발주규모 및 증감률 -



- ▶ 공종별로는 **산업설비*부문에서** 전년대비 **중동(MENA)지역이 32%** 감소한 426.4억불로 나타났으며 **GCC지역은 60.7%** 감소한 157.5억불로 조사됨
- * 화학(Chemical), 가스(Gas), 산업(Industrial), 석유(Oil), 전력(Power)
- **토목*부문**은 전년대비 **중동(MENA)지역이 6.8%** 증가한 374.5억불인 반면, **GCC지역은 10.3%** 감소한 222.1억불로 나타남
- * 교통(Transport), 수처리(Water)
- **건축(Construction)부문**은 전년대비 **중동(MENA)지역이 41.4%** 감소한 315.8억불, **GCC지역은 45.3%** 감소한 250억불 수준으로 나타남

(단위: 백만불, %)

구 분	MENA			GCC		
	2019	2020	전년대비	2019	2020	전년대비
화 학	5,472	1,293	-76.4	2,007	426	-78.8
가 스	16,057	4,301	-73.2	11,390	2,757	-75.8
산 업	6,600	5,884	-10.8	3,811	1,859	-51.2
석 유	20,579	14,642	-28.8	16,934	3,655	-78.4
전 력	14,031	16,517	17.7	5,917	7,051	19.2
산업설비	62,739	42,637	-32.0	40,059	15,748	-60.7
교 통	24,889	28,858	15.9	16,352	14,076	-13.9
수 처 리	10,160	8,591	-15.4	8,401	8,136	-3.2
토 목	35,049	37,449	6.8	24,753	22,212	-10.3
건 축	53,904	31,578	-41.4	45,473	24,896	-45.3

- 원활한 인력수급 및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해외건설 근로자 건강보험료 면제 해외 체류기간 1개월로 축소*** 및 **해외건설인의 예외적 입국 허용**** 확대 요망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의2(보험료가 면제되는 국외 체류기간) 법 제7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0.7.8일부로 시행
- ** 우리 기업인의 입국을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증빙시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국가는 쿠웨이트,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자가 격리 등 입국요건이 까다로움
- 수주활동* 및 현장**에서 근무 예정인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예외적인 백신 우선 접종 승인 요망**
- * UAE ADNOC(아부다비 석유공사)와 같은 중동 유수 발주처는 백신 접종이 안 된 근로자와 면담 거부 및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
- ** 싱가포르에서는 이미 백신 또는 면역여권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주 감염경로인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미 접종자 입국도 제한 전망
- 아시아 개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경기 침체를 방어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유인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유망국 대상 **ODA 증액 및 PPP, BOT 등 투자개발형 프로젝트 제안 필요**

- * 아시아지역은 유일하게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건설 수주비중 역시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각국의 현지화 정책 강화에 따른 시공(조립 및 설치 등) 효율성 제고 및 공기 단축을 위한 **Off-Site Construction*** 활성화를 위한 지원** 필요
 - * 공장 혹은 별도 부지에서 현장 설치 이전에 시설물 구성요소를 제작, 조립(Prefabrication, Modular Construction) 등을 통해 현장 근로시간을 최소화하는 방식(공법)
 - ** 국내 모듈 제작사(제조기업)와 동반 진출 시, 마중물 비용 지원 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며 해외 유망기업 인수도 적극 장려